

이달에만 세번... 빗나간 기상예보 '빈축'

23일 실제 강수량 예보와 큰 차... 지난 14일엔 비 예상 됐지만 빗방울 전무

이달 들어 기상청 예보가 3차례나 빗나가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자정까지 제주 남부·산지 100mm 이상, 나머지 지역에는 20~6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하지만 예보와는 달리 23일 정오를 넘기면서 비가 그치기 시작했다. 이에 기상청은 이날 오후 1시를 기해 호우특보를 해제했다. 많은 비를 예상해 빨래를 걷고, 우산을 챙긴 도민들에게 허탈감을 안긴 순간이었다.

실제 이날 제주지역 강수량은 서귀포 25.2mm, 삼각봉 56.5mm, 성산 25.5mm, 제주시 18.7mm에 그쳤다. 앞서 지난 8일 기상청은 '4월 9~10일 기상 전망'을 발표해 "상해부근에서 남해상으로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9일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10일 아침에 그치겠다"며 제주산지 120mm 이상, 나머지 지역은 30~80mm의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그러나 9일부터 10일 오전 4시까지 측정된 강수량은 삼각봉 76mm, 서귀포 39.9mm, 성산 60.1mm, 제주시 9

mm, 대정 15.5mm에 그쳤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에는 오전에 5mm 미만의 비 예보가 있었지만 빗방울을 찾아볼 수는 없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23일 예보는 저기압 중심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주도 남쪽해상을 통과했고, 부족한 찬 공기 유입, 서쪽에서의 건조한 공기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강수 시점이 어긋났다"며 "계절이 바뀌는 시점에는 기상 변동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어 "예보가 빗나갈 경

우 담당 예보관은 '사후 분석보고서'를 작성한 뒤 원인 분석 및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들에게 최대한 올바른 기상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5일 제주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으며, 오후 9시부터 26일 오전 3시 사이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북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26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된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014년 사면붕괴 우려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안덕면 대평 급경사지에 대해 사업비 34억원을 투입, 2020년까지 보수·보강사업을 추진한다.

대평리 사면붕괴 재해위험요인 해소 서귀포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발주

2020년까지 34억 투입

서귀포시는 안덕면 대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평 급경사지는 2014년 10월 사면붕괴 우려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최근에는 기존옹벽의 균열 등으로 낙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는 사업비 34억원을 투입해 도로변 급경사지에 대한 보수·보강 사업을 추진, 2020년까지 사

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더불어 급경사지 사면 정리와 도로의 급커브 구간에 가드레일 설치 등 안전시설도 보강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붕괴위험 발생 우려지역을 발굴해 단기간의 처방보다는 항구적 복구 계획을 수립,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나가겠다"며 "이에 중앙부처와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고 국비 절충을 강화해 사면붕괴 등의 피해가 없는 서귀포시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소방, 석가탄신일 특별경계근무 전통사찰과 문화재 안전점검·화재예방 강화

제주소방안전본부는 5월 12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소방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5건의 사찰화재가 발생해 46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

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촛불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합선과 원인미상이 각각 1건이었다. 이에 제주소방본부는 다음달 2일까지 도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284곳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문화재가 보관돼 있는 사찰은

소방지휘관이 직접 방문해 안전컨설팅을 실시하게 된다. 이 밖에도 석가탄신일을 전후해서는 소방관서의 경계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올리는 '화재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해 주요사찰에 소방력을 전진배치 할 예정이다. 제주소방본부 관계자는 "화재예방 활동을 강화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드론버스는 드론교육+항공촬영+항공방제+드론판매

DRONE BUS

국가 자격증반 모집 (필기시험 면제)

AGRICULTURE DRONE

농약살포 대행 해드립니다

064-746-7277 (24h 상담)



24일 제주시 관계자들이 제주공항 진입로에 설치된 해태상을 아라동 소방교육대로 이전하기 위해 철거하고 있다. 제주시는 4·3당시 600여명이 희생된 이곳을 옛 이름인 '도령마루'로 되살릴 계획이다.

'해태동산' 이젠 '도령마루'로... 제주공항 진입로 해태상 철거... 소방교육대로 옮겨

제주시는 제주4·3 71주년을 맞아 4·3 학살터 중 하나인 '도령마루'의 옛 이름 회복을 위해 제주공항 진입로인 신제주 입구 교차로에 있는 해태상 2개를 24일 아라동 소방교육대로 이전했다. 해태(해치)는 옹고 그름을 가릴 줄 알고 화재나 재앙을 물리친다고 알려진 상상 속의 동물이다. 이런 의미를 반영해 2개의 해태상을 제주시 아라동 산전단에 위치한 소방교육대 입구로 이전, 화재 등 재앙을 예방하는 상징으로 거듭나게 됐다. 본래 해태상은 1970년대 초 해태제과에서 '도령마루' 입구에 회사 광고를 위해 기증했다. 당시는 4·3에 대한 얘기가 금기시되고 있던 때

라 자연스럽게 '해태동산'으로 지금까지 불리게 됐다. 도령마루(용담2동 1764-1번지 일대)는 옛날 양반집 도령들이 대정현과 제주성을 오가면서 쉬어가던 고개였다. 불행히도 제주 4·3 당시 도령마루 인근 소나무밭에서 지역주민 600여명이 영문도 모른채 희생당한 슬픈 역사를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이날 고회범 제주시장은 "오랫동안 숨겨져 왔던 4·3의 아픔을 달래고 슬픈 역사를 간직한 도령마루가 이제는 특정 업체의 이름보다는 제주 4·3의 의미를 간직한 지역 고유의 명칭인 '도령마루'로 불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서민의 술 '소주' 인상 러시? 하이트진로 출고가 6.45% 올려 한라산소주 등 동참 여부 관심

소주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다음달부터 소주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나머지 업체들도 인상 대열에 동참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4일 소주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다음달 1일부터 참이슬 소주의 공장 출고가격을 6.45% 인상한다. 이에 따라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360ml)의 공장 출고 가격 1병당 1015원에서 1081원으로 65원 오른다. 하이트진로는 원부자재 가격, 제조 경비 상승 등을 이유로 소주 값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고 가격 인상 여파로 소비자 가격

은 병당 100원 가량 오른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1위인 하이트진로가 소주 값을 인상하면서 나머지 소주업체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소주업계에서는 1등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면 후발 업체들도 이를 뒤따르는 게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11월 하이트진로가 소주 출고가격을 5.52% 올리자 약 일주일 뒤 나머지 소주업체들도 줄줄이 가격을 인상했다. 당시에는 제주지역 소주업체인 한라산소주도 인상대열에 합류해 한라산 오리지널(360ml)의 출고가격을 1080원에서 1114원으로 3.14% 올렸다. 때문에 한라산소주가 이번에도 인상을 단행할 지가 도민들 사이에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한라산소주 측은 "아직까지는 가격 인상을 검토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성민기자 hasm@ihalla.com

2019 제주도세계지질공원 수월봉트레일 개치를 축하합니다.

하나로마트

신선한 농수축산물 풍요로운 밥상
농민인의 정성을 느껴보세요.

도내최대 식재료전문매장

우리몸엔 우리 농산물이 좋습니다!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제주점 729-1551 식재료매장 729-1621 하나로마트 오라점 747-6260 하나로유통센터 750-6500